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이수*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킬로나 Kelowna
파견대학	Okanagan College	기간	2017. 1. 22(일) ~ 2. 12(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캐나다 킬로나에 위치하며, 규모가 많이 크지는 않지만, 시설은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좋습니다. ESL을 듣는 일본인 학생들이 많았고, 한국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월, 수, 금은 보통 오전에 ESL 수업을 하고, 오후에 활동을 하였고, 화, 목은 오후까지 ESL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은 레벨을 나누는 것은 없었고, 같이 갔던 다른 한국학생 12명과 들었습니다. 처음에 영어 실력이나, 하고 싶은 수업 방식 등에 대해 설문지를 작성했고, 게임을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었고,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미니 프레젠테이션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되는 문장, 단어를 배웠고, 게임 내용은 캐나다에 대한 내용의 빈칸 채우기, 빙고게임, 그 날 배운 문법으로 파트너와 나에 대한 영작, 캐나다 영어의 발음, 학교 학생(외국인)에게 질문하기 등 다양한 게임을 했고 1등에게는 메이플 시럽이나 잔 같은 상을 주셔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파트너는 매일 아침 다양한 주제(생일 순, 키 순, 머리길이 순 등)를 갖고 랜덤으로 정합니다. 또 A부터 Z까지 캐나다에 관련된 단어를 매일 아침마다 하나 또는 여러 개 가르쳐주셨고, 마지막 날에 그것들을 이용한 게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끔씩 선생님의 지인을 초청해서 캐나다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제는 초반에는 하루에 1개 정도 있었고, 가족 인터뷰하기, 미니 프레젠테이션 준비 등 많이 부담되지 않는 과제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는 파이널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면서 부터는 없었습니다. 노트와 필요한 수업자료는 파일로 철을 해서 주시기 때문에, 굳이 종이나 노트를 들고 갈 필요는 없었고, 펜이나 연필 같은 필기도구정도만 있으면 됩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와이너리 방문, 스케이트, 스키/스노우보드, 컬링, 볼링(수영장 대체), First Nation 문화 체험, 쇼핑, 아이스하키 관람, 시내 구경을 했습니다.</p> <p>방수복은 스키타러 갈 때만 필요하고, 스케이트나 컬링할 때는 굳이 입지 않아도 됩니다. 장갑이 젖을 수 있기 때문에 스키장갑이랑, 일반 장갑 두 개 준비하는 것이 좋고, 수영장은 일정이 바뀌어 볼링장을 가서 친구들과 주말에 따로 가봤는데, 가격은 싸지만 크기가 작아서 1시간쯤 지나니 할 것이 없었습니다. 스키복은 렌탈이 되는데 수영복은 렌탈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와이너리에서 와인을 시음하고 원하면 사도되는데 20에서 30달러 정도 했습니다. First Nation 문화체험은 킬로나 지역에 처음 살았던 인디언에 대해 배우는 것인데, 중간에 학생들이 참여해서 연극도 하고, First Nation의 음식도 먹어보고, 돌에 그들의 언어로 그림그리는 것도 합니다. 스케이트는 빌려서 신는데, 끈으로 묶는 스케이트로 발이 아프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쇼핑은 Orchard Park Mall에서 하는데 이곳은 친구들이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가는 길에 들려서 쇼핑을 하던 장소고, 생각보다 넓고, 저희가 갔던 시기가 시즌오프 시기라 할인을 많이 해서 옷이나 신발을 싸게 살 수 있었습니다. 많이 하는 곳은 80%로 할인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아이스하키 관람은 밤에 했는데 15분씩 3세트하고 중간에 쉬는시간은 20분씩이었습니다. 아이스하키 경기는 처음봤는데, 공격적이라 처음에는 거부감도 조금 들었는데 보다보니 너무 재밌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다같이 킬로나의 하키팀인 로켓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파는 음식을 먹으면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초반에는 한국이랑 온도가 비슷하거나 더 높아서 좋았는데 둘째 주였나 눈이 엄청 많이 와서 추웠습니다. 눈이 한번 오면 많이 오기 때문에 부츠를 들고 가는 것을 추천하고, 장갑이나 모자도 가져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많이 왔을 때 발목까지 쌓였고, 또 핫팩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위험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금방 어두워져서 너무 늦게까지 밖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제가 머물렀던 집은 학교에서 북쪽에 위치했는데, 1층에는 차고와 저의</p>

	<p>방만 있었고, 2층에 거실과 부엌, 방3개와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저희 홈스테이 가족은 노부부 였고, 지하실 사는 남자 한분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지하실에 사는 남자는 빨래할 때나, 심심할 때 가끔 올라왔고, 두 노부부는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을 자주하셨고, 집에 플레이스테이션 VR이 있어서 저도 가끔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밥은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것이 아니고, 먹고 싶을 때 알아서 먹거나 저녁은 보통 배고프다하고 하면 차려주셨습니다. 아침은 씨리얼을 먹거나 과일을 먹었고, 점심은 매번 싸주셨습니다. 저의 홈맘이 요리를 잘하셔서 저는 친구들과 밖에서 외식하는 것보다 집에서 먹는 것을 선호했고, 홈스테이 하는 친구들의 국적에 맞게 요리를 해주셔서 저는 만둣국, 탕수육, 짜장면 등 종종 한국식으로 저녁을 만들어 주셔서 좋았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집은 좀 자유로워서 허락을 받으려고 하면 여기는 너의 캐나다 집이라며, 모든 걸 제 자유에 맡기셨고, 캐나다는 물을 저장해서 쓰기 때문에 다음사람을 위해서 샤워를 짧게 끝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희 집은 매번 목욕을 하라며 물을 받아주셨고, 편하게 3주를 보내고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야할 규칙은 집에서는 고양이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홈스테이 가족들이 말도 자주 걸어주시고, 제가 영어에 자신이 없어하니깐 잘했을 때는 칭찬을 해주셔서 대화하는 것에 있어 두려움을 덜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가끔 서로 못 알아들으면 메시지를 통해 대화를 하기를 원하셔서 조금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계속 말해보려고 하니깐 나중에는 기다려 주셔서 좋았습니다.</p>
<p>식사</p>	<p>학교식당() 홈스테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외부식당 ()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아침은 씨리얼이나 과일을 먹었고, 점심은 매번 싸주셨는데 샌드위치나 제가 면을 좋아해서 면 종류를 준비해주셨고, 저녁은 보통 집에서 먹었고 가끔 친구들과 외식을 했습니다. 조금 짜기는 했지만 맛있었고, 양이 조금 많아 배부른 경우가 많았습니다.</p>
<p>교통</p>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가끔 제시간에 오지 않아 지각하는 경우도 있었고, 5시 6시만 되어도 버스 배차시간이 1시간 2시간이 되어서 차를 놓치면 밖에서 추위에 떨어야 되거나, 비싼 돈을 주고 택시를 타야했습니다. 밤에 버스가 많이 없어서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버스 번호가 Exchange에서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잘 확인해야됩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및 여행자보험	약 1,500,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식사	약 90,000원	100CAD
선물	약 270,000원	300CAD
쇼핑	약 235,000원	250CAD
합계	약 2,095,000원	650CAD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펄에서 여권사본 사용 불가하니 혹시 펄에 갈 생각이 있으면 여권 꼭 챙겨야 합니다.
 짐은 1개당 23kg인데 한국에서는 그냥 넘어가주는데 캐나다에서 집에 올 때 무게 초과
 하면 100달러 내야하니 캐리어 2개에 나눠서 들고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캐나다 커피숍
 인 Tim Hortons에 아이스캡(아이스 카푸치노)이랑 프렌치 바닐라가 유명한데, 싸고 맛있
 으니 한번쯤 먹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끔 집이 추운 곳도 있으니 작은 전기장판 들
 고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있으니 작업을 편하게 하려면 노트북을
 들고 가는 것이 좋고, 파일에 노트도 주니 필기구는 펜이나 샤프 같은 것만 있으면 됩니
 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영어실력이 좋지 않은데 말이 통하지 않는 낯선 곳에서 3주를 지내야 된다는 생각에 걱
 정이 되었는데, 막상 가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다들 잘 해주셨고, 시간이 지
 날수록 영어가 익숙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주에 일본인 친구가
 왔는데 집에서 캐나다인, 일본인, 한국인 이렇게 셋이 말하려다보니 어떻게든 영어로 말
 하려고 노력하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공기도 맑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캐나다 다시 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캐나다에서의 3
 주 생활이 정말 좋았고, 기간이 조금 짧은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홈팸과 일본인
 친구가 저랑 더 있고 싶다고 여권 숨기자고 장난칠 정도로 단기간이었지만 많이 친해졌
 고,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된거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금도 계속 메
 시지를 주고 받으며 연락을 유지하고 있고, 저는 여름에 다시 캐나다에 놀러가겠다는 약
 속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교환학생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적응을 못할
 수도 있고, 먼저 경험해보고 싶어서 이번 단기 어학연수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이번 경
 험을 통해 외국에서 학생으로서의 생활을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유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올해의 목표는 공인어학성적을 취득
 하여 교환학생에 지원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활동 : 와이너리 투어



활동 : 아이스하키 구경



활동 : 스키 & 보드



활동 : 컬링



홈스테이 식사



마지막 날